



새로운 터치스크린 적용 휴대폰 등장

노트PC전용 터치 패드 전문기업인 미국의 사이넵틱스(Synaptics)가 독일 디자인 회사인 파일럿피시(Pilotfish)와 차세대 휴대폰 컨셉 모델 '오닉스(Onyx)'를 발표했다.

오닉스는 기존 휴대폰에 존재하던 키패드가 없다. 사이넵틱스의 터치 스크린 기술인 '클리어패드(ClearPad)'로 조작된다.

이 기술은 지금까지의 터치 스크린 기술과 달라 탭뿐만 아니라 손가락끝으로 그려진 형태나 복잡한 제스처, 손가락이나 얼굴의 접근도 인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손가락으로 'X'를 그리는 동작으로 태스크를 종료하거나 메시지를 화면 밖으로 보내는 동작으로 메시지 송신을 실행할 수 있다.

노키아 '명품 휴대폰', 없어서 못 판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노키아가 발표한 보석 휴대폰 애스틴 마틴은 2000만원~8000만원에 판매되는 프리미엄 휴대폰이지만 없어서 못 파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키아측은 생산량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애초 한정량으로 판매를 시작했고 현재 판매 수량은 10~20만대 수준이지만, 고객들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추가 생산을 계획한 것.

노키아가 발표한 명품 휴대폰 애스틴 마틴은 '노키아8800' 휴대폰에 스테인레스 스틸 커버를 입혔다. MP3P 및 카메라/블루투스 기능이 있으며 세련된 애스틴마틴의 자동차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있다. 특히 류이치 사카모토가 벨소리를 작곡해서 그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

한정판으로 판매되는 노키아 애스틴마틴 에디션은 스테인레스 부위에 레이저로 애스틴마틴 로고를 새기고 다큐멘터리 동영상과 배경화면, 스크린세이버, 그리고 Vantage 380마력 V8 엔진 벨소리 등 애스틴마틴의 모든 것을 담고자 한 노력이 보인다.

노키아측은 "현재 수요를 맞출 수가 없을 만큼 인기가 높다"고 말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AMD, 상하이에 R&D센터 개설

AMD가 지난달 22일, 중국 상하이에 자사 R&D센터를 개설했다.

이 R&D센터에서는 AMD의 차세대 프로세서 대응 플랫폼 개발을 실시한다. 우선 AMD의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하며, 향후 AMD 프로세서의 검증 작업이나 테스트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AMD는 이 센터에 수 백명 규모의 엔지니어를 배치할 예정으로, 이 정도 인력은 미국 외 AMD 연구인력 중 최대규모이다.

AMD 역시 이 R&D센터가 향후 자사 시스템 설계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퀄컴, IMS 소프트웨어업체 '퀄폰' 인수

퀄컴이 샌디에고에 위치한 휴대폰 소프트웨어 및 테스트 제공업체인 퀄폰을 인수한다.

퀄폰은 모바일 기기와 IOT 테스트(상호 운용성 시험) 서비스에 사용하는 IP기반 멀티미디어 서브 시스템(IMS) 내장형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퀄컴은 퀄폰의 제품과 연구인력을 인수하는 것으로 IMS와 멀티미디어 도메인 아키텍처는 물론 멀티미디어 기능 및 다기능 3세대 솔루션을 보다 빠르게 WCDMA/UMTS시장 및 CDMA2000 시장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퀄폰의 IMS 클라이언트 플랫폼으로 퀄컴은 통합 및 인터랙티브 미디어/음성/텍스트/사진/비디오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무선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퀄폰의 3세대 IP 멀티미디어 내장형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는 각각의 무선통신 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사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며, 토털 IOT 서비스로 제품 출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CDT,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공정 개발 추진

CDT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중요한 금속 증착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개발 및 상용화를 진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취해지는 이 프로젝트는 영국 무역 산업청의 일부 지원으로 추진된다.

이 특별 프로젝트는 전도성이 높은 박형 금속 트랙을 유리나 플라스틱 기판에 증착시키는 공정 개발을 주요골자로 한다. 기존의 잉크젯 프린팅 방법을 대체할 이 새로운 공정은 레이저를 사용해 재료를 노광시켜 5미크론 이하로 분해시키는 특징을 지닌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TFT 백본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이 공정 기술은 플라즈마와 LCD 디스플레이에 적용될 뿐 아니라 CDT가 보유한 기존의 P-OLED 및 유기 광전지에도 적용된다.

이 프로젝트에는 차세대 플라스틱 기술 보유기업인 카클로(Carlo)의 자회사인 CIT를 비롯해 레이저 공정 장비 업체인 엑시텍(Exitech)이 CDT의 파트너로 참여한다.

대만 메모리업체 킹스톤, PMP 출시



메모리 생산업체인 대만업체 킹스톤 테크놀로지(Kingston Technology Company)가 PMP 사업에 뛰어든다.

킹스톤(www.kingston.com.tw)은 지난달 세련된 디자인과 초슬림 폼팩터를 자랑하는 PMP 'K-PEX' (Kingston Personal Entertainment eXperience)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비디오·음악을 감상하거나 비디오 게임을 즐기고, 사진을 저장해 볼 수 있는 이 제품은 현재 북미, 라틴 아메리카 및 아시아/태평양 연안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내장 메모리가 각각 1GB와 2GB 용량 두 종류로 제공되며, 외장메모리(miniSD) 슬롯을 제공해 음악·비디오·사진을 직접 메모리 카드로 손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특판용으로 최초 2GB 플레이어에 무료 킹스톤 miniSD 카드를 포함시킨 번들 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다.